

지성인 인증제도를 실시한다면?

박 종 래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

H형! 오랜만입니다. 형께 글을 통해 대화를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좀 생경한 느낌도 들지만, 휴대폰이 다 인터넷이다 해서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을 하며 빠르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이렇듯 고전적인 방법으로 대화를 하는 것도 나름대로는 느낌의 미학을 추구하는 색다른 느낌이 듭니다.

연일 섭씨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가장 더운 여름이라고 하니 제법 위세가 드센 더위이긴 한 모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저 푸른 그들이 배경으로 깔린 시골의 정자에서 찬물에 발 담구고 수박이나 베어 물면서 가끔씩 책장을 뒤적이거나 하릴없이 오수를 즐기는 그런 피서를 꿈꾸게 됩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생활이란게 어디 이런 꿈인들 마음대로 실천에 옮겨 볼 수 있게 합니까? 아무리 더위도 피서휴가 한번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고, 설령 휴가를 가질 수 있다 하더라도 좁은 땅이라 사람들이 피서가는 시기도 비슷하고 쉴 수 있는 장소 또한 너무나 뻘해서 한꺼번에 몰리게 되니,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인파에 시달리며 제풀에 지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집에 있는게 낫겠다 싶어 '방콕'을 최후의 피서지로 택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저도 방콕과의 한 사람으로서 집에서 소일하고 있던 어느날, 마침 방학을 맞아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고3 아들녀석이 문장하나를 해석 해 달라며 불쑥 내미는 걸 보니 영어 문장으로 가득찬 두 장의 종이였습니다. 마침 약간의 줄임기운과 눈맞춤을 하고 있던 참이라 좀 귀찮다는 표정으로 그 종이를 넘겨 받았는데, 제목을 보는 순간 눈치를 보며 기웃대던 줄음이 걸음아 나 살리라면서 부리나케 줄행랑을 놓습니다.

제목 : Hallmarks of an Educated Man, 저자 : T. V. Smith

어? 이게 뭐야? 배운 사람들에게 지성인 인증마크를 준다? 학위증 말고 따로 인증마크를 준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주는 거야? 등등...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의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사이 어느새 해석해 달라던 아들녀석의 요청도 먼 기억 속의 일이 되고 있습니다.

배운다는 것, 그리고 가르친다는 것, 이 둘을 하나로 합치면 교육이란 단어로 표현될 수 있을텐데, 교육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나라만한 데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 지면에서 새삼 왈가왈부 할 필요를 느끼지는 않지만, 우리의 교육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에 대해 여러모로 생각해 볼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에 언급한 제목으로 된 글의 내용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교육일선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체면치레 할 정도로는 교육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차에 만난 글인데다, 요즘 제품자체나 공정, 품질관리 등에서 여러 가지의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것이 유행처럼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식의 인증마크를 부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당연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항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배운 사람들이 지성인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

이 주제는 수년 전에 뉴욕 도서관협회의 연례모임에서 논의가 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논의는 고등교육을 받은 소위 배웠다는 사람들이 실상은 전혀 지성인과는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러한 등급의 교육을 받았다는 징표 혹은 학위증만으로 마치 지성인으로 여겨지는 오류상황을 피하기 위해 그들이 표출하는 행동거지를 보고 지성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합니다. 즉, 지식인과 지성인을 구분하자는 의도였겠지요. 따라서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판단 기준이 지성인의 인증요소로 제시

되고 있습니다.

“교육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표출하는 행동거지에 의해 평가될 수 밖에 없다. 교육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의 소산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대략 여섯 가지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교육 받은 사람들이 지성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여섯 가지 기준이란 호기심, 상상력, 효율성, 경건한 진실성, 포용력, 그리고 자부심이다.”

위에서 언급한 여섯 가지 인증요소의 각각에 대해서도 저자는 제법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호기심은 지성인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요한 요소로서, 만약 이 요소가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머리가 텅 빈 얼간이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모든 소리에 귀를 쫓듯 세운다든가, 모든 새로운 맛에 적어도 한번 이상은 입맛을 다신다든가, 우리 주변의 듣지도 보지도 못한 세계에 대해 열렬히 동경한다든가 하는 것은 교육을 통해 습득이 가능한 것들이며 실제로 교육과정에서 일부씩은 반영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자기 고집을 너무 앞세운 나머지 이런 교육을 거부한다면 그 어떤 변화의 여지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언제나 변화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상상력 또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호기심은 만약 그것이 품위가 없는 것이라면 천박한 것이 되기 십상이다. 이런 점에서 상상력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호기심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가끔 대학교육까지 받은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는 매우 미묘하고 민감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아무런 깊은 생각도 없이 불쑥불쑥 참견하면서 예의에 어긋난 무식한 질문들, 예컨대 왜 그러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무엇을 위한 것이냐?, 정확한 차이점이 무엇이나? 등등과 같은 질문을 던져 대는 꼴볼견을 목격할 때가 있다. 호기심은 교육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하지만 상상력은 필요충분조건이다. 왜냐하면, 상상력은 잘 절제된 호기심 이어서 그 자체의 광채로서 스스로를 보상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효율성은 또 다른 의미에서 중요하고도 고귀한 요소이다. 이는 모든 교육받은 사람들이 단순히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다 지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을 통한 실천으로 그것을 드러내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교육받은 사람이 잘 살기 위해, 정말로 잘 살기 위해 실천해야 한다면, 그 실천은 효율성이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어디에도 쓸모없는 존재라면 그가 아무리 우등생 클럽의 회원이라 하더라도 그는 진정한 지성인이 될 수 없다. 어떤 일을 한다는 것, 그 일을 잘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을 남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잘한다는 것, 한마디로 보다 효율적으로 일한다는 것은 곧 내적 만족감과 외적 효용가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효율성은 지성인 여부를 판단하는 또 다른 지표가 되는 것이다.”

넷째, “비록 요즘 세상에서는 거의 무시되고 있지만 진실성 (종교적 경건함에 비유할 수 있을 정도의 진실한 마음) 역시 아주 고귀한 지성인의 미덕이다. 이 경건한 진실성은 결코 종교적인 것이 아니며 신성한 그 무엇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진실성은 개개인의 특성과 전체로서의 총체성을 투철하게 인식하고 그에 대해 깊은 경의 혹은 존경심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 어떤 자연의 일부분도 그리고 인간 사회의 아무리 작은 부분도 경이로울 정도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은 없다. 심지어는 우리들의 인생 길에 일어나는 나쁜 일도 가능하면 적게 일어나야 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전체와 동떨어진 그 무엇으로 존재하거나 그렇게 치부되어 무시될 수 없다. 링컨 대통령은 대학 문은 본 적도 없고 학위라고 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그는 지성인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이 경건한 진실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내가 취급하는 것은 어느것 하나도 무시하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귀중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섯째, “포용력은 상상력이라고 하는 지적특성의 감성적 부속물이다. 그것은 상상력이 우리들의 지적영역을 확장해 갈 때, 우리들의 감성적 영역을 달래면서 어루만져주는 것이다.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웃음으로 감싸주는 일은 어쩌면 아주 쉽고 그리고 유용한 일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웃음은 내가 상대방을 아예 배척하고 등을 돌리는 것을 막아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들 스스로의 실수를 그렇게 웃음으로 포용하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매우 가치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웃음이 우리들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위계양을 방지하거나 고달픈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거나 혹은 무엇보다도 정신병원 입원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교육받은 사람들이 같은 수준으로 교육받은 사람들, 혹은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충돌되는 일이 있을 때조차도 비록 내키지는 않지만 그들을 웃음으로 감싸주는 것, 그리고 서로의 이상이나 인생관에 있어서 서로 상반되는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 억지로 쓴웃음이라도 지어내어 감싸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아주 아주 어렵지만, 우리가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을 포용하지 못해서 광란적인 언동을 저지르게 되는 어리석음으로부터 우리들의 신념과 품위를 지켜갈 수 있게 해주는 정말로 정말로 필요한 일이다.”

여섯째, “자부심 혹은 자기만족은 교육의 마지막 단계이며, 포용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사람만이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슨 일을 하건 어떤 경우에서건 자기 스스로를 믿고 자기의 근본을 찾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지성인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의 근본을 찾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스스로를 자기 중심도 없이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고 다니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일 뿐 아니라 왠지떨친 군중들로 가득찬 저갓거리에서 그의 참다운 마음을 찾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참다운 마음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내면의 고독 속에서 자란다. 지성인이라면 그가 원하는 것, 즉 참다운 마음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만 한다. 자기 자신의 참다운 정신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을 뿐 아니라 참다운 정신을 바탕으로 한 자부심 혹은 자기만족과 비교할 만한 그 어떤 다른 만족도 없다.”

이상과 같은 여섯 가지 기준을 지성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저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상의 여섯 가지 중 한가지 만이라도 보여 달라. 그러면 나는 당신의 인생 여행의 동반자로서 당신께 경의를 표시할 것이다. 만약 여섯 가지 모두를 갖추고 나타나 나를 깜짝 놀라게 한다면, 나는 당신을 영웅으로서 존경하겠다. 여섯 가지 중 세가지를 갖추고 있다면, 나는 당신을 지성인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나의 진정한 친구로 인정하고 당신의 친구가 되고자 노력할 것이다. 나는 당신이 몇 권의 책을 썼는지 묻지 않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혹은 적은 책을 읽었는지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친구가 누군지도 묻지 않을 것이며 혹은 언제 어디서 당신의 학위를 취득했느냐고 묻지는 더더욱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당신 스스로의 훈련을 통해 지성인이 되었다면, 이것 한가지만은 당신께 꼭 부탁하고 싶다. ‘절대로 자만하지 말라. 그리고, 대학을 나왔다든 사실만으로 생기를 얻고 도서관의 책을 통해서 양식을 얻는 일에 열심인 다른 사람들을 깔보지 말라’고.” 소개하고자 하는 글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제 스스로를 판단해 보았습니다. 여섯 가지 요소 중에 제대로 갖추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발견하고는 부끄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괜히 박사나 교수나 하는 이름에 기대어 교단에서 왔던 것은 아닌가 하고 깊이 자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제부터라도 진정한 지성인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에도 있지만, 교육은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의 참다운 마음을 발견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들도 표현은 약간 다르지만 든사람, 난사람, 된사람의 세가지 분류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된사람을 가장 으뜸으로 여겨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이야’ 라고 표현하는 데서 드러나듯이 된사람은, 내면의 충만함을 상징하는 지식으로나 외면의 원만함을 상징하는 외적인 명성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 이들이 내면의 참다운 마음에 의해 잘 조화되어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의 마음까지도 내 마음처럼 포용해 가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풀이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지식으로만 알고 말만 하며 실천하지 않는 사람도 아니고 명성에 기대어 남을 무시하거나 깔보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남을 나와 같게만 여길 수 있다면 진정한 지성인이 될 수 있다는 뜻도 되겠고, 마음하나만 잘 쓰고 살아도 지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더위에 겨운 삼복 철에 혹시라도 형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온갖 일들이나 혹은 형 주변의 사람들로 인하여 일어난 마음의 불길을 잡지 못하여 더욱 심한 더위를 느끼고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 그 불길의 씨앗이 바로 형께 있었음을 직관하시어 더위도 씻으시고 지성인의 위치도 회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맺습니다. 너무나 열정적이어서 매사에 흥분을 쉽게 하시는 경향이 있는 형이시기에 요즘처럼 매일같이 논란거리가 쏟아져 나오는 시절에 어떤 마음으로 지내고 계신가 궁금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항상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추신: 좀 오래 되었습니다만, 교육부 장관을 하던 어떤 분이 교육방송 TV에 나와서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대학교육을 통해서가 아니라 감옥에서 지낼 때 읽었던 많은 책들을 통해서 배웠다고 말한 것을 두고, 형께서는 교육부의 수장이라는 자가 공교육을 무시하는 발언을 겁도 없이 저렇게 막말을 해도 되느냐고 몹시 흥분하신 적이 있었지요? 지금 그 분은 이 참여정부에서도 아주 중요한 요직을 여전히 맡고 있습니다만, 그분을 위에서 소개한 여섯 가지 기준으로 판단해 본다면 형께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실 수 있겠는지요? 어떤 결론에 도달하더라도 그것 또한 형의 존재와 무관치 않음을 바로 보시어 또다시 시시비비에 휩싸이지는 말기 바랍니다.